

광주·전남 상장사 '유리 천장' 여전... 여성 임원 0명 '9곳'

■ 광주·전남 유가증권 상장사 임원 현황

(단위: 명, 미등기 포함)

회사명	대표	남	여	합계
한전	남	17	2	19
금호타이어	남	41	1	42
대우에이텍	남	13	1	14
우리금융	남	12	1	13
금호에이치티	여	11	1	12
한전KPS	남	9	1	10
보해양조	여	8	1	9
광주신세계	남	5	0	5
금호산업	남	26	0	26
화천기공	남	21	0	21
DSR제강	남	8	0	8
조선내화	남	17	0	17
대우플라스	남	7	0	7
다스코	남	16	0	16
부국철강	남	4	0	4
세화아이엠씨	남	15	0	15
16개사 합계		230	8	238

(자료: 각 사 공시)

16곳 임원 238명 중 여성 8명
여성 임원 비율 3.4% 그쳐
광주신세계·금호산업 등 '전무'

광주·전남 유가증권 16개 상장사에서 여성 등기 임원 비중은 전체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원이 아예 없는 곳도 절반 이상(9개사)이었다.

7일 광주일보가 광주·전남 16개 유가증권(코스피) 상장법인이 제출한 지난해 분기보고서(9월30일 기준)를 분석해보니, 임원 수(미등기 포함)는 남성 230명·여성 8명 등 총 238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임원은 여성의 29배에 달했고, 여성 임원은 전체의 3.4% 비중을 그쳤다.

한국전력에만 여성 임원이 2명 있고, 6개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여성이 한 명씩 있다.

한전은 지난해 9월 부수장(34) 전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사외이사를 2년 임기 비상임이사로 선임했고, 우리금융은 지난해 4월 한미숙(58) 우리

은행 강남1영업본부장을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 관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은 광주신세계, 금호산업, 화천기공, DSR제강, 조선내화, 대우플라스, 다스코, 부국철강, 세화아이엠씨 등 9개사이다.

대표이사가 여성인 금호에이치티(조경숙)와 보해양조(임지선) 2개 기업을 포함하면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은 11개사로 늘어난다.

광주·전남 주요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은 남성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16개 상장사 총 직원 수는 남성 3만2164명·여성 6370명 등 총 3만8534명이다. 남성 직원 수는 여성보다 적게는 2.2배(우리금융)에서 많게는 45.3배(화천기공)까지 격차를 보였다.

금속공작기계 등을 만드는 화천기공에는 총 324명의 직원이 있는데, 여성 직원은 2.2%에 불과한 7명이 다니고 있었다. 남성은 45.3배 수준인 317명이다.

남성 직원 수가 10배 이상인 회사는 화천기공과 대우에이텍(38.3배), 금호타이어(20.5배), 조선

내화(15.2배), 금호산업(14.4배), 한전KPS(10.7배), DSR제강(10.6배), 부국철강(10.2배), 다스코(10.1배) 등 9개사이다. 반면 광주신세계 여성 직원은 118명으로, 남성은 이의 37% 수준인 44명이었다.

성별 평균 연봉 차이는 1900만원에 달했다.

16개사의 1인 평균 급여액은 남성 5300만원인데, 여성은 64% 수준인 3300만원을 받고 있었다.

연봉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대우플라스로, 남성(5800만원)은 여성(2400만원)의 2.4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다.

2배 이상 차이는 기업은 광주신세계(2.1배), 금호산업(2배) 등 3곳이었다. 가장 격차가 달한 곳은 금호에이치티였는데, 남성(3400만원)은 여성(3100만원)의 1.1배 수준을 받았다.

광주·전남 코스피 상장사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10.3년 정도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1.9년으로, 여성(8.8년) 보다 3.1년 정도를 더 다녔다. 근속 연수가 가장 많이 차이는 곳은 부국철강으로, 여성 직원(4.7년)은 남성(17.5년) 보다 근속 연수가 무려 12.8년 짧았다.

한전KPS도 근속 연수가 11년 차이(남 14.8년·여 3.8년)가 났다.

여성이 더 오래 다니는 기업은 보해양조(격차 2.3년), 우리금융(1.9년), 다스코(1.1년), 금호에이치티(0.9년) 등 4개사이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세계 여성의 날'(8일)을 맞아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상위 200대 상장사의 등기임원 144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여성 등기임원은 65명으로 전체의 4.5%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국내 여성 대표이사 수는 4명에 그쳤고, 200대 상장사 중 여성임원이 단 1명도 없는 곳은 전체의 73%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여성 임원 수는 1.7배로 늘었지만 미국 여성 임원 비율(3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여성 임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내년 7월까지 반드시 여성 등기임원을 최소 1명 이상 뒀다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국민 감사관' 도입

한국전력은 국민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전 국민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산업, 감사업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법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등이 대상이며 총 10명을 선발한다. 일반 국민 6명과 협력사 4명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여성으로 뽑는다.

한전 국민 감사관은 고객 서비스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 한전과 계약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활동 기간은 1년이다.

신청자격은 에너지산업, 감사업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전력산업 유관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 추천자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5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9	22	27	37	42	3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40,636,009	14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37,530,890	102			
3	5개 숫자일치	1,169,616	3,273			
4	4개 숫자일치	50,000	146,120			
5	3개 숫자일치	5,000	2,331,848			



신고 걸으며 청소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8층 '포커스' 매장에서 실내를 거닐며 청소도 함께 할 수 있는 극세사 소재 '실내화 걸레'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대학생 응원 '학생증 체크카드' 이벤트

교내식당 캐시백·편의점 할인권

광주은행은 오는 5월31일까지 '광주은행 학생증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동신대, 동강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목포해양대, 호남신학대, 기독간호대, 초당

대, 보진대 등 14개 광주·전남 대학이다.

학생증 카드로 교내 학생식당을 이용하면 해당 금액의 5% 상당을 돌려준다. 하루 2500원, 월 3만 원 한도이다.

또 학생증 카드를 간편결제 카드로 등록한 뒤 사용하면 주점을 통해 스타벅스 이용권이나 GS편의점 1만원권을 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스포티지 신차 성공다짐 결의대회에서 박래석(왼쪽에서 다섯번째) 공장장과 패넬로 참석한 임직원들이 신차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기아 제공>

'스포티지 신차' 성공 양산 다짐대회

기아 오토랜드 광주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공장장 박래석)는 지난 5일 스포티지 주력 생산공장인 2공장에서 '스포티지 신차' 성공 양산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아는 최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아 국내 공장의 명칭을 오토랜드로 변경했다. 오토랜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조공간이자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 체험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스포티지 신차(프로젝트명 NQ5) 출시에 앞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안전을 기해 품질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양

산일정을 준수해 성공적인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공장 내부에 스튜디오 오를 마련, 온라인 생방송에 임직원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래석 공장장은 "1993년 출시 이래로 28년간 이름을 바꾸지 않은 스포티지는 2015년 이후 기아 전체 차종 중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는 등 세계 시장에서 기아와 오토랜드 광주를 대표하는 모델이다"며 "스포티지 신차에 오토랜드 광주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문화로 피어나는 광주 동명동

광주의 역사와 희망으로 채운 동명동의 시간 문화재생 프로젝트 한창, 개성있는 문화마을로 인문·문화 향기 나누며 동명동을 지키는 사람들 '동명동 100배 즐기기' 동리단길 투어

- 특집: '자연을 그려내는 미술관' 3월 개관 전남도립미술관
- 클릭, 문화현장: '우리 동네에 갤러리가 생겼어요'
- 문화로 품은 건축물: 자연광과 예술이 만나는 순수한 공간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 문화 화재-광주 북구 '우리동네 미술' 프로젝트
- 배국남의 대중문화 저파일: 설 자리 사라진 개그맨과 코미디 부활 절실

45년 종이인형 만들어온 엄정애

"인형 만드는 과정은 치유의 시간"

- 예향 초대석: 아름다운 누각, 남원 광한루
- 살고 싶은 집, 이야기가 담긴 집: 건축사의 꿈을 담은 집 광주 백운동 '백소현(白巢軒)'
-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예술과 기술 통합, 모던한 '바우하우스 양식' 만든다
-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조너선 스위프트' 컬러 여행기 '호기심이 마르면, '우리'에 갇힌다'
- 선동열의 야구학: 강속구의 시대, 한국 야구는 왜 소외됐나
- 전시 리뷰: 해동문화예술촌 <문화를 빛낸 도시, 담빛예술마을>전
- 예향이 만난 이 사람: JTBC '싱어게인' 주역 정홍일·이무진 스마트시티 부사장 이승규 모교 찾아 훈련하는 자이언츠 투수 김원중
- 씩씩하게 남도 한 바퀴-구례: 꽃소식이 달려온다, 구례 새봄 여행
- 섬진강, 지리산에 맺는 봄 우리말과 산수유